

## 볼리비아, Carlos Mesa 대통령 재신임

### □ 경과: 가스법 처리와 관련 Mesa 대통령, 사임안 제출

- Carlos Mesa 대통령은 가스법(Hydrocarbon Bill)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3월 7일 의회에 사임안을 제출함. 볼리비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임안을 승인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음.
- 2003년에도 미국과 멕시코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정책에 대해 원주민 세력이 격렬한 시위를 일으켜, Gonzalo Sanchez de Lozada 전 대통령이 강압적 시위진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있음. 당시 부통령 Mesa가 2003년 10월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이번 사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기인한 것임.
- 사임안이 승인되면 상원의장 Hormando Vaca Diez가 임시 대통령 직을 수행하며 2007년으로 예정된 대선을 앞당겨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Mesa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달하는 점으로 미루어 각 정당들은 사임안을 승인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 Mesa 대통령의 자원정책 및 시위의 주요 이슈

- Mesa 대통령은 가스법 통과를 통해 2,100억 달러 규모<sup>1)</sup>의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음. 현재까지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 ExxonMobil, Repsol YPF, Petrobras 등 26개사가 3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1)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1조 5,600m<sup>3</sup>이며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2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 의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스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18~38%의 로열티를 부과하고 32%의 직접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됨.
- 가스법 처리를 반대하는 사회주의 운동(Movimiento al Socialismo; MAS) 정당, 농민, 원주민 등은 도로 및 공항, 유정, 파이프라인 등 국유시설을 점거하며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요구.
- Mesa 대통령 취임 이후 약 820회의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최근 주요 이슈는 연료가격인상 철회, 프랑스계 수도회사 폐쇄<sup>2)</sup>, Santa Cruz 지역 자치권 확대,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로열티 인상, 코카인 재배 근절 계획 반대 등임.
- 지난 1월에도 휘발유, 디젤 가격을 10%, 23% 인상한 조치에 대해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각각에 대해 6% 포인트 인하한 바 있음. 또 프랑스계 수도 회사에 대한 장기 운영계약을 철회하고 자치권 확대 국민투표안을 수용하는 등 이해집단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되어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의회, 대통령 재신임안 가결

- 3월 8일 의회는 만장일치로 Mesa 대통령을 재신임하였으며 MAS를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Mesa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협정(Social Pact)에 서명함. Mesa 대통령은 재신임을 통해 얻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협정을 신속히 실행에 옮길 것으로 알려짐.
- 사회협정에는 국유시설 점거 및 시위 자제, 볼리비아 9개주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 가스법의 신속한 처리, 신헌법 제정을 위한 의회 소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El Alto 지역의 프랑스계 수도회사가 빈민지역에 수도를 공급하지 않자 수도회사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 □ 향후 전망

&lt;표 1&gt; 볼리비아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억 달러

구분	2003	2004e	2005f	2006f
경제성장률	2.5	3.6	3.0	3.5
재정수지(GDP대비)	-7.9	-6.8	-6.2	-6.0
외채규모	50.4	49.5	55.5	60.0
외환보유고	7.2	8.0	8.5	8.0

자료: Latin America Monitor.

- 외채규모의 증가와 재정수지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 반대세력이 지속적으로 동 정책에 협조할지의 여부는 미지수임.
- 한편, 볼리비아 최대 정당 MAS의 지도자 Evo Morales가 재신임안에는 동참하였으나 Mesa의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을 것을 표명함. 또한 Mesa 대통령이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아 향후 각 정당 및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번 사태로 인해 원주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부존자원이 비슷하고 원주민 세력의 자치 성향이 강한 에콰도르, 페루 등 주변국과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타 중남미권 국가들에 정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음.

전문연구원 고희원 (☎3779-6686)

E-mail : koheewon@koreaexim.go.kr